유니폼의 양면성을 도입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권기영

경북대학교 의류학과/장수생활과학연구소

The Study of Symbolic Images in Modern Fashion Design adopting the Dualistic Meanings of Uniform

Kwon Gi 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enter for Beautiful Aging, Daegu, Korea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ymbolic images appeared in modern fashion design adopted dualistic meanings in uniforms. Uniforms signify order, conformity and discipline in public life. The dualistic meanings in uniforms appeared modern times are as follows: public authority vs individual non-authority, heterosexual identity vs homosexual identity, time-space uniformity vs mixed diversity. The symbolic images appeared in modern fashion design adopted dualistic meanings in uniforms such as military uniforms, school uniforms, nurses' uniforms, sports uniforms and etc. are erotic image, hybrid image, and kitsch image.

Key words: uniform, dualistic, erotic, hybrid, kitsch, fashion

1. 서 론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유니폼(uniform)은 내 부적으로는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외부적으로는 직업·계급·역할 등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이처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제복인 유니폼은 기업체의 이미지, 직종형태 등을 나타내며 착용자에게는 소속감과 통일감을 주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 그러므로 최근 들어 유니폼의 역할은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기업의 상징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여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김상민, 김연희, 2001).

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대중문화에서 유니폼이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착용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장에서부터 일상의 레저생활, 업무상의 공식적 유니폼에서부터 합의에 의한 준유니폼에 이르기까지 유니폼의 착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의 광고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유니폼은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외적 도구로서 패러디(parody)와 비유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니폼은 공적인 측면에서 질서, 통제, 신뢰, 동조를 의미하

며, 다른 측면에서는 파괴, 이탈, 제재, 수치를 의미함으로써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상반된 가치를 인정하고, 기존의 규범이나 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허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도래와 관련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니폼은 상징적 의미와 형태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유니폼의 종류별 역사 및 시대적 배경,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제안을 위한 설계나 만족도 조사, 그리고 현재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착용자들의 실태조사에 그쳐왔다. 또한 한연희, 박명희(2005)가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규정된 제복으로서의 유니폼을 권위성, 차별성, 구속성, 신뢰성, 심미성의 내적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실제 대중문화나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유니폼의 조형성을 도입한 패션디자인이 가지는 미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유니폼을 통해 고찰되는 양면적 의미를 고찰하고 최근의 컬렉션에서 발표되는 유니폼을 응용한 다양한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상징적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이 유니폼의 조형적 형태를 그들의 디자인에 접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니폼의 미적 가치가 어떻게 재창출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Kwon Gi Young
Tel. +82-53-950-6222, Fax. +82-53-950-6219
E-mail: gykwon@knu.ac.kr

연구 방법으로는 2000년 이후 발간된 패션잡지 및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인 그리고 패션 관련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유니폼의 조형성을 도입한 패션디자인을 추출 및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유니폼의 정의와 의미

복식은 타인과의 차별을 드러내는 사회적 장치로서 신분의 상징이다. 그 중에서도 제복, 즉 유니폼은 개인이나 단체의 권위를 표방하고 이를 공권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한 특정한 형태의 옷(Langner, 1965)으로서 자신이 스타일과 디자인을 선택하는 다른 일반 의상과 달리 타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유니폼은 형태와 특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똑같은 규준과 규칙에 순응하는 멤버, 예를 들면 군인, 선원, 경찰 등에 의해 입혀지는 의복이라고 정의된다.

유니폼의 종류는 오쿠하라 시즈에(奥平志江, 1999)에 따르면, 의식용 유니폼, 직업복으로서의 유니폼, 단체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식용 유니폼은 학위복 등 예복을 말하며, 직업복은 군복, 경찰복, 간호원복 등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의 직업을 알려주는 복장을 뜻한다. 그리고 단체복은 집단의 사상이나 의식을 통일하고 직업과 행동을 규정하는 의복으로서 교복, 스카우트복, 운동선수복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직종별 유니폼 내에서도 디자인이나 색상, 종류에 따라 착용자의 지위가 드러난다. 이처럼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계급과 일치하면서, 유니폼은 미나 몇의 상징보다는 질서와 안정의 상징으로 활용되어 왔다. 비록 유니폼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사무직 종사자나 클럽회원, 스포츠 관람객 등이 착용한 유사한 스타일의 의복을 준유니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준유니폼은 착용자 개인이 각자 입었지만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공통성으로 인해 유사한 방식으로 입는 것을 뜻한다.

유니폼은 과거 십자군 전쟁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십자군 병사의 군복에 사용한 가문의 문장 표식이 발달하여 오늘날의 유니폼으로 진화하였다(Boehn, 1913/2000).

모든 유니폼은 처음 디자인될 때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특히 공식제복은 그 스타일이 처음 고안될 당시의 이미지가 그대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니폼을 입고 주어진 임무를 분명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방종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시각적 언어의 중심이자 공간적인 장소에서의 관습이라 할 수 있는 유니폼은 착용자의 자아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 뿐 아니라 내적 자아와 그것의 형성을 위한 통제 역할을 한다. 유니폼이 전달하는 잠재적인 메시지들은 입는 것과 입지 않아야 하는 것 등 주로 금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유니폼에 관한 규칙은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우므로 이를 이해하고 순응하여 적절하게 입는 것은 의복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 자신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의복아이템 및 장식보다도 더 중요하다(Craik, 2005).

유니폼 관례는 일률적인 사회적 생활에서 유니폼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과, 역으로 위반했을 때 따르는 제재나 벌로서 강요되어진다. 제재의 형태로는 특권상실, 수치심, 물리적·심리적 혼란 등이 있다.

한편 유니폼은 정치체제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과거 중국이나 북한 등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민복이라고 불리는 유니폼 착용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을 보면 의복이 그 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하나의 도구로 착용될 뿐 아니라, 세계 정치사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니폼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의미 또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군복처럼 유니폼에 부착되어 있는 뱃지나 훈장은 착용한 사람의 계급과 역할, 그리고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대변하고 지위의 차이, 경쟁, 성(gender)을 보여준다.

작업복은 힘, 물리적 노동, 그리고 과학을 표시한다고 여겨져 왔고 이것은 남성다움의 속성과 비견되어 여성에게는 모호한 정체성을 부여해왔다. 동일한 작업복을 입은 착용자들은 업무의 동일성을 암시하며 계층적 지위면에서도 평등을 상징한다. 또한 타이핑이나 사무업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한 작업복은 아주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러운 점이 배제된 실용적이고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테일러드 슈트, 사무복, 셔츠와 스커트, 하이힐은 사무복의 기본이 되었다. 스커트 차림의 테일러드 슈트는 여성의 성에 관한 온건한 진술로서 실용적이고 업무적 단일성이 부여된 남성슈트와 결합된 이미지를 창출한다(Steele, 1989). Fig. 1은 1994년 Unites Colors of Benetton의 캠페인 광고이다. 베네통의 광고에서 얼굴 가득 얼룩을 묻히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백인 남성과 흑인남성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의 평등한 이미지를 작업복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인종적 차이는 무의미함을 은연중에 나타내며 베네통의 추구가치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유니폼 착용은 착용자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동조하고 있음을 매순간 의식하게 해줌으로써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생활을 전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유니폼의 유형과 착용자의 지위를 통해 특정한 구조적 관계를 전달(Stone, 1970)한다. 유니폼에서 보여지는 색채와 명암의 대비, 금속장식, 동세(動勢),

Fig. 1. Unites Colors of Benetton Advertising Campaign, 1994 (Workwear, p. 18)

동시성과 반복성은 유니폼을 입은 신체를 스펙터클(spectacle)하게 해주는 시각물의 주체가 되며, 유니폼과 준유니폼을 입은 신체는 끊임없이 유니폼화된 자아를 형성한다(Joseph, 1986).

2.2.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유니폼의 양면성

양면성은 어떠한 한 사물에 내재해 있는 상반된 가치, 의미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절대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며, 이분법적인 논리를 타파하고 여러 가지 면을 다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경계를 타파한다.

20세기는 다양한 가치와 개성을 인정하면서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문화의 특징과 요소들이 등장하고 이를 받아들인 당시 대인들에 의해 새로운 특징적인 스타일이 구축되었던 시기로서, 양면성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가치관 수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나아가 해체주의, 키치(kitsch), 패러디 등 다양한 장르들과 관련을 가지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과거와 현재, 미래, 남성 대 여성, 이성애 대 동성애 등 대립적 가치의 혼재와 전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규범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는 유니폼에서도 이러한 양면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유니폼에 함축된 양면이중의식은 실제 유니폼과 이를 착용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속성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니폼이 예술, 사진, 영화, 행위예술, 음악에서 표현되는 양상은 유니폼에 대한 함축적인 미와 상징의 가변성을 보이며 미적 코드를 의미있게 형성해 왔다. 즉 유니폼은 이전의 규범, 표준, 질서라고 하는 유니폼에 내재된 통념을 오히려 비틀고 왜곡, 조롱함으로써 새로운 다양한 미적 가치의 실험을 행하였다.

유니폼의 이중적인 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생물적 신체 화법이 자아에 각인되고 그것의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나온다(Craik, 2005). 특히 규범적 코드로부터 이탈, 반란이나 파괴, 개별적 해석, 동일성 내의 차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유니폼과 관련된 일화는 자아의 발달단계와 관련된다.

기성사회의 가치관이나 법규 제재에 저항하고 반대하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표방하는 하위문화는 그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그들 그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옷차림을 하게 되고 이는 준유니폼으로 확립된다.

외면상으로 유니폼은 질서, 복종, 그리고, 훈련을 상징하지만 이면에는 모호한 에로틱 충동과 도덕적 공정함을 구현하는 숭배화된 문화적 유품(Craik, 2005)으로서의 이중적인 면을 지닌다.

유니폼이 가지는 위반과 파괴의 이미지는 하위문화,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사도 마조키즘(sado-masochism), 매춘, 복장도착, 크로스드레싱(cross dressing), 회가극, 참회 화요일, 게이 문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니폼이 의도하는 동일성, 단일성, 규범성, 위계성, 지위와 역할과 같은 상징성은 유니폼을 착용하여 표방하는 비공식적인 약호, 예를 들면 파괴, 개별적인 해석과 차이 사이에서 지속적인 역할변화가 있어왔다(Craik, 2005).

이는 유니폼이 하나의 패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회의 관습이 자유화되고 옷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판별할 수 없을 때 유니폼은 멋을 위한 도구가 된다. 교복 자율화 이후에 교복에 대한 향수나 군사 정권이 붕괴된 뒤에 유행하는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은 교복시대나 군사 문화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자기를 남과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유니폼이 지니는 양면성을 주류문화와 하위문화라는 이중구조 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현상과 상징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공적 권위성 대 개성적 탈권위성

공적 지배질서를 위해 고안된 유니폼은 주류문화의 사상과 가치를 대변하며 역할해 왔다(Craik, 2005). 예복, 군복, 경찰복 등 정형화된 형태는 힘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군복과 경찰복은 의복 장식의 증가를 통해 연속되는 계급의 관계를 나타내고 예복은 전통성과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한연희, 박명희, 2005). 그러나 1960년 들어 대중문화나 하위문화는 이들 공적 유니폼이 상징하는 주류문화를 거부하고 반대로 유니폼의 모티브를 젊은 문화와 반문화를 위한 적합한 이미지들로 변형하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히피들은 그들의 반전사상을 군복을 통해 표현하였는데, 군복에서 가져온 밀리터리 모티브는 체 게바라(Che Guevara)의 베레(beret)와 반다나(bandana), 팔레스티안 두건처럼 반체제, 저항, 혁명의 상징이 되었고, 저항그룹의 유니폼은 특히 거리패션에서 강한 특징을 보이며 대중화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수단과 전쟁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군복 스타일이 이용되었다(Craik, 2005).

미국의 군복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옷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인들의 군복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면서 실생활에 출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물자 부족으로 남성 군용복을 일상복화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의 로큰롤(rock & roll) 스타들도 마찬가지로 군복을 무대의상으로 착용하여 그들의 반전사상을 표현하였는데, Fig. 2에서 Jimi Hendrix는 헝클어진 머리에 밀리터리 재킷단추를 풀어헤치고 자유분방한 차림으로 공연하면서 원래의 군복이 지녔던 질서와 통제라는 유니폼의 상징을 비틀고 조롱하였다(Hilfiger & DeCurtis, 1999). 이와 같이 군복은 위엄과 권위에 대한 반항이라는 이미지로 대중 문화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유니폼의 이미지를 비트는 것은 일반화되어, 군복 스타일은 스트리트 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으로서 시크한 것으로 여겨졌다.

종교복 또한 성스러운 종교적 이미지와 금기를 깨고자 시도한 대중음악이나 하위문화에서 패러디되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Blitz kids는 수녀들의 제의(祭衣), 특대의 십자가상, 극도로 흰 메이크업 등을 무대세트나 의상 등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이 타파해야 할 또 다른 금기로서 종교적 이미지들을 다루었으며,

Fig. 2. Jimi Hendrix (Rock Style, p. 66)

Fig. 3. 신부와 수녀의 키스를 담은 베네통 광고, 1991.

Antenna 헤어드레서 Scarlett은 헤어스타일을 십자가로 하여 종교적 이미지를 조롱하였다.

광고에서도 이러한 예는 볼 수 있는데, Fig. 3의 검은 옷의 사제와 흰 옷의 수녀의 키스 신을 담은 베네통 광고는 입맞춤으로 화해되는 흑백구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선과 악, 죄와 면죄 등의 이분법적 개념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종교적 규율을 상징하는 신부복과 수녀복에 내재된 금기된 욕망을 표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김홍탁, 2002).

이와 같이 하위문화의 급진적 진술로 여겨졌던 것들이 주류 젊은 패션에서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공적인 직무에 따른 권한의 부여로 권위성을 띠고 있던 유니폼은 차별화된 개성에 따른 탈권위성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2.2.2. 이성애 정체성 대 일탈적 성적체성

주류 사회는 이성애를 당연시하며 그것에서 일탈적인 행위를 보이는 페티시나 복장도착,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일탈과 관련한 복장에서 유니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제복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구속적이고 억압적인 면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 광고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타인의 이목을 끄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잘 차려입은 단정한 제복은 그 이면에 은폐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대한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착용자가 지닌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제복을 차려입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제복이 일종의 페티시(fetish)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티시는 하나의 사물이나 신체의 일부, 혹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으로서 스타킹이나 속옷, 유니폼, 구두 등 주로 이성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에 흥분하는 것을 뜻한다. 성 동일시와 욕망, 그리고 지위와 권위 사이의 연계가 되는 유니폼의 페티시화와 관련하여, Hirschfeld(1991)는 군대 내에서 많이 보여지는 크로스드레서(cross dresser)에 의한 복장도착에서 유니폼에 의해 도출되는 암시적인 성적 관여를 확인했다. 여성의 남성복 착용과 같은 복장도착, 특히 군복 착용은 기존의 규율, 권위, 질서를 타도 전복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발산한다.

페티시즘(fetishism)을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Stekel은 제복의 페티시즘이 범죄적 본능이나 동성연애와 관련있다고 보았다. 패션과 사물에 대한 애착을 갖는 페티시 종류에는 에이프런, 언더웨어, 레인코트, 각종 유니폼, 장갑, 스타킹, 손수건, 안경, 하이힐, 부츠 등이 페티시로서 인기있는 의복 아이템으로서 제복을 입은 모습에 흥분을 느끼는 것은 유니폼 페티시라 할 수 있다. 이는 규준과 틀에 맞춰진 옷의 형태인 제복이 흐트러져 있을 때 오히려 색시함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군인이나 경찰관의 유니폼 중 가죽소재로 된 아이템은 페티시 재질로 많이 이용되는데, 가죽소재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특성과 동시에 군인이나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인 힘과 연관되어 성적인 매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죽은 반문화의 상징이면서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체라인이 드러나는 가죽옷을 입은 바이커 복장에서 보여지는 동성애에 이 미지도 그러한 예이다. 그 뿐 아니라 군인, 카우보이와 경찰관의 가죽옷 그리고 무거운 부츠 등이 가죽 페티시 아이템(이의정, 양숙희, 1998)에 해당한다.

포르노그래피가 교복·군복·간호사복·수녀복 등 제복 즉 유니폼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정직과 규율의 이미지가 에로틱 이미지에 의해 벗겨지는 쾌감이 일반 복장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김홍탁, 2003).

Imperial War Museum내에 전시되어 있는 간호복 옆에서 밀리터리 적십자가 그려진 헬멧과 암밴드(arm band)를 착용하고 간호사 복장을 한 Fig. 4의 사진을 보면 실제 상황에서 착용되었던 것들이지만 짧아진 에이프런과 다른 악세서리와의 혼재를 통해 실제의 의미와는 다른 페티시적인 이미지가 발산된다(Polhemus, 1996). 이 때 간호복은 간호사가 지닌 봉사와 헌신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비틀었으며 색시하고 에로틱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녀복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굴욕이나 절대복종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제복으로, 하녀의 에이프런과 모자는 에로틱(erotic)한 지배와 복종의 시나리오와 결부되며 간호사의 치료행위는 새디즘(sadism)이나 관음증으로 연결되어 페티시한 성적 환상을 유발한다. 간호사의 제복이 과학자나 의사의 연구실 제복이 아니고 하녀나 가정부의 모자와 에이프런에서 유래

Fig. 4. Kaisu (Style suurfing, p. 114)

한 역사가 간호사의 이미지를 명확히 해준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남성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관음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 등이 페티시한 간호사의 이미지이다(이의정, 양숙희, 1998).

해군병사들의 제복인 세일러복 또한 순종, 질서, 용기, 그리고 충성의 이미지 뿐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독립과 반항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세일러 이미지가 대중문화에서 파괴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것은 70년대 글램 락(glam rock)이 세일러복에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적이며 호모에로틱(homoerotic)한 외관을 차용한데서 볼 수 있다(Wilson, 2008). 주류적이고 반문화적인 코드의 광고를 진행해 온 Diesel 브랜드는 전쟁에서 돌아온 해군을 맞는 동성 해군 커플의 키스를 보여주는 Fig. 5의 광고에서 군복이 상징하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파괴 전복하며 동성애적인 성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미국 해군의 게이(gay)입대 반대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와 대중문화에서 보이는 기성세대의 규

Fig. 5. Diesel 광고, 1992 (<http://www.naver.com>)

범에 대한 저항과 복식을 통한 일탈 등에서 유니폼이 지니는 공적인 맥락 등을 뒤트는 요소는 그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일종의 준유니폼으로 확립된다. 일탈행동의 수많은 예들에서 유니폼이 복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제복이 가지는 규율, 권위, 질서라는 이미지가 위법적인 이해에 의해 전복되었을 때 가시적 충격과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2.2.3. 시공간적 일체성 대 혼성적 다양성

착용자의 신분과 역할을 알려주는 유니폼은 공적 공간에서 공적 질서유지 및 규준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일체화된 의미와 약속을 나타내며 착용방법 및 입는 장소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종교복이나 학위복 등 의식용 유니폼, 군복, 경찰복, 간호원복 등 의복을 통하여 착용자의 직업을 알려주는 복장인 직업복, 그리고 교복, 스카우트복, 운동선수복 등 집단의 사상이나 역할 행동 등을 알려주는 단체복 등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착용되면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일체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를 위해 유니폼에는 착용 장소와 상황에 따른 변화, 그리고 함께 매치되는 품목들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원칙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성적이며 자유로운 사고, 기존의 규율과 전통을 전복하며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등으로 유니폼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평상복들과 함께 매치되거나 다른 스타일로 변형되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다양한 창의적 스타일들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Fig. 6에서 보듯이 스포츠 경기시 응원팀들이 입는 팀 유니폼은 스포츠 선수들만이 입는 팀 구별을 위한 약호로서의 유니폼의 역할변화를 벗어나서 응원을 위해 모인 개개인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대중성을 띤다. 스포츠 유니폼은 오늘날 편리하고 기능적인 일상패션으로서 캐주얼 스타일과 다양하게 매치되어 입혀지고 있으며, 혼성적인 다양성을 보인다.

또한 Fig. 7에서처럼 TV에서도 프로그램의 취지나 분위기에 따라 방송 진행자에게 교복 등 유니폼을 입혀 재미를 더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중음악의 뮤지션들도 곡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따라 무대의상으로 교복 패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

Fig. 6. Brasil 응원팀 (www.naver.com)

Fig. 7. 「인기가요」 프로그램 (2010년 8월 29일)

례에서 보듯 다른 의복에 비해 배타적인 유니폼은 실제 대중매체에서 본래의 맥락과 시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연출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니폼의 양면성을 도입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상징적 이미지

전통적인 유니폼이 상징하는 원래의 이미지를 벗어난 파괴와 맥락의 범주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이미지의 출현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보이는 성구분의 모호, 동서양의 상호절충, 과거의 전통적인 것을 현대에 가져와 의복에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는 등 절충성, 상호텍스트성 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니폼의 양면성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유니폼의 양면적 이미지는 공적 권위성 대 개성적 탈권위성, 이성애 정체성 대 일탈적 성적체성, 시공간적 일체성 대 혼성적 다양성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유니폼의 양면적 이미지를 도입한 패션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이미지는 에로틱(erotic) 이미지, 하이브리드(hybrid) 이미지, 키치(kitsch) 이미지로 나타났다.

3.1. 에로틱 이미지

유니폼이 지닌 조형적 요소들은 패션디자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조적인 스타일로 구현되면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클래식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예로 군복에서 디자인 요소를 따온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밀리터리 룩은 직선적인 기능성과 활동적인 실루엣에 넓은 칼라, 견장이나 아웃포켓, 금속버튼 등 전형적인 군복 스타일에서 벗어나, 점차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여성미를 나타낼 수 있는 섹시한 옷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밀리터리를 테마로 한 08년도의 Jean Paul Gaultier 패션쇼는 해군복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Fig. 8에서 목에 맨 스카프와 머리에 쓰고 있는 해군모, 상의 재킷의 아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한 차림은 해군복에서 보여지는 절제미와 단정한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키며 의외성과 동성애적인 요소를 보인다. 이처럼 이분법적 성적체성이 해체되고 다양한 성 정체성으로의 분화는 유니폼에 영향을 주었는데, 성적 특성이 배제된 남녀공용의 중성은 스포츠 패션의 무성적 스타일을 통해 남녀 양성간의 미묘한 성적 특성에 주목하도록 하였다(임은안, 채금석, 2002).

이전에 실제 전쟁 상황에서 착용했었던 붉은 적십자가 그려진 군용헬멧과 암밴드는 다른 패션 아이템과 결합되면서 원래의 의미맥락이 왜곡 전복되어 다른 에로틱 차원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실제 클럽에서 착용한 적십자 아이템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산한다. Fig. 9의 Christian Dior의 작품은 간호사복을 테마로 한 이브닝 웨어로 적십자 장식을 한 모자와 얼굴의 장식, 그리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라텍스 장갑을 낀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페티시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Louis Vuitton의 Marc Jacobs 또한 08년 봄 패션쇼에서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미술가인 리처드 프린스의 작품 '간호사'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를 기획하였다. Fig. 10에서 색색의 가방을 든 12명의 간호사복을 한 모델은 비닐 소재

Fig. 8. Jean Paul Gaultier, 08 S/S (Collezioni, p. 277)

Fig. 9. Christian Dior, 00-01 F/W (Workwear, p.14)

Fig. 10. Louis Vuitton, 08 S/S (www.naver.com)

Fig. 11. Moschino Chip and Chic Advertising campaign, 01-02 F/W(Workwear, p. 56)

가운 아래에 비취보이는 색색의 속옷을 매치하여 섹시하면서도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Moschino의 세컨드 브랜드인 Chip and Chic의 01-02 F/W 광고인 Fig. 11에서 에이프론을 두른 하녀복 컨셉의 노출의상을 입고 바닥에 무릎꿇고 있는 패션모델의 이미지는 야릇한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내재된 잠재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3.2. 하이브리드 이미지

하위문화가 주류문화에 순응하는 과정 속에서 스타일의 지속적인 고안은 새로운 형태의 독특한 하이브리드를 증가시킨다 (Polhemus, 1996). 하위문화에서 전통적인 유니폼의 이미지를 벗어나 파괴와 일탈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유니폼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최근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유니폼의 디테일을 다양한 아이템과 혼합하는 멀티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있다. Fig. 12의 Jean Paul Gaultier는 여성스러운 코르셋 아이템을 카무플라지 패턴의 밀리터리 팬츠와 코트에 매치함으로써 기존의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던 요소들을 혼합하고 융합하면서 등장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낸다. John Galiano는 2008 S/S 쇼를 파리근교의 교회에서 바리케이드와 해체된 프로펠러 등 밀리터리 무대셋팅이 된 곳에서 진행하였다. 사이버 군인에서부터 베테랑 군인과 중동지역 병사와 핵전쟁 생존자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웨어, 카고팬츠와 해체된 티셔츠, 재구성된 텍시도와 다양한 직물로 된 의상을 통해 밀리터리 요소를 빈티지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는데 특히 Fig. 13에서처럼 사실적인 군 장비들을 의복에 함께 매치시킴으로서 현장감을 더하면서 패션적인 요소를 추가하였다. 군복은 목숨을 지켜 내는 보호의복으로 활동성과 안전성, 실용성의 목적이 극대화된 의복이었으나 최근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특징은 사회적인 변화나 저항의식의 반론이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를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박세은, 2005).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는 유니폼의 장식적 디테일을 다른 아이템과 접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원래 있던 규칙을 파괴하는 것은 스포츠웨어 아이템과 정

장과의 믹스매치 코디네이션에서도 눈에 띈다. 이는 격식보다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캐포즈 스타일의 유행경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사이클링 웨어, 승마복, 수영복, 오토바이룩, 자동차 레이서들의 옷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유니폼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평상복화되어 가고 있다. Dsquared²의 패션쇼 Fig. 14는 카레이서의 팬츠 스타일에 정장용 재킷을 매치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화이트 색상의 가죽에 컬러풀한 액센트가 들어간 작업복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은 혁신적이고 자유분방한 정신과 영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8 S/S에서 Gaetano Navarra는 익스트림(extreme) 스포츠와 서바이벌 키트(survival kit)에서 보여지는 디테일들의 예기치 못한 조합과 일상에의 응용을 통해 스포츠 유니폼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Fig. 15는 벨트, 브레이스(brace), 스트랩(strap), 클립, 포켓, 지퍼 등의 디테일이 들어간 스포츠룩에서 응용된 복식으로서 이 밖에도 침단 소재로 만든 정교한 장치를 장착한 바라클라바(balaclava) 모자가 달려있는 네이비 재킷(navy jacket), 침단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 다이빙 슈트(diving suit), 러닝 쇼트(running short), 항해용 캥골(kangol), 방풍 소재 등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디테일의 셔츠,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요트용 블레이저(blazer)에서 등에서 유니폼의 활동적 요소를 일상복과 융합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웨어가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등장한 것은 기술발달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패션의 기능성과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스포츠 웨어가 일상생활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이다. 스포츠 웨어의 구조적 단순성과 기능성을 디자인 요소로 응용하거나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수용한 스포츠웨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때 밸크로 여덥, 지퍼, 후드, 파우치 등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기능적 아이템과 디테일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장식적 용도와 함께 기능적인 이미지(임은안, 채금석, 2002)를 표현하고 있다.

Fig. 12. Jean Paul Gaultier, 08 S/S (Collections, p. 162)

Fig. 13. John Galiano, 08 S/S (Uomo Collezioni N.61, p. 286)

Fig. 14. Dsquared², 08 S/S (Uomo Collezioni, N.61, p. 135)

Fig. 15. Gaetano Navarra, 08 S/S (Uomo Collezioni, N.61, p. 155)

Fig. 16. Derek Lam, 05-06 F/W
(Collections, p. 70)

Fig. 17. 08 S/S Yves Saint Laurent
(Collections, p. 140)

Fig. 18. Frankie morello, 06-07 A/W
(Uomo Collezioni, p. 118)

3.3. 키치 이미지

유니폼이 자아내는 전통과 권위의 이미지는 조형적 디테일 요소를 과장하거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조합을 통해 유머를 느끼게 하거나 원본을 패러디함으로써 키치 이미지를 발산한다.

Fig. 16에서 Derek Lam은 카톨릭 사제복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망토의 등에 장식하였는데,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여주는 종교 예복의 모티브인 십자가 장식을 디테일에 활용하면서 종교적 권위를 비틀고 키치이미지를 표현한다. Fig. 17에서 Yves Saint Laurent은 군복의 계급장을 모티브로 한 금속재질의 베스트를 착용한 모델을 선보였다. 군복과 경찰복은 의복 장식의 증가를 통해 연속되는 계급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유니폼의 조형적 요소를 테마로 하여 사이즈를 확대 반복하며 누드의 상반신에 걸치게 함으로서 군복의 권위와 위엄을 전복하며 카타르시스와 함께 키치 이미지가 느껴진다.

교복 스타일을 응용한 Fig. 18은 형클러진 헤어에 헤로인 시크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한 남성 모델을 통해 건강과 젊음, 규율을 상징하는 교복의 이미지를 전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유니폼을 이용한 패션에서 보이는 키치 이미지는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풍자, 지배계층의 권위체계와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보이는 유니폼의 다양한 스타일 변화는 기존의 유니폼이 지니고 있던 권위와 배타적인 경계를 해체하고 비

평적으로 풍자한다. 특히 외부의 규율이나 통제보다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의사표현을 원하는 현대인의 가치관과 연관성을 가지며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Table 1에 유니폼의 양면성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유니폼을 통해 고찰되는 양면적 의미를 고찰하고 최근의 컬렉션에서 발표되는 유니폼을 응용한 다양한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상징적 이미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착용자의 신분과 역할을 알려주는 유니폼은 공적 공간에서 공적 질서유지 및 규준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일체화된 의미와 약호를 나타내며 착용방법 및 입는 장소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적인 측면에서 질서, 통제, 신뢰, 동조를 의미하는 유니폼은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사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현대 패션사에서 다양한 의미와 약호를 획득해 왔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키치, 패러디 등 다양한 장르들과 의미와 가치를 교류하고, 하위문화계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원래의 이미지를 파괴하고 일탈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일탈 행동의 수많은 예들에서 유니폼이 복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

Table 1. 유니폼의 양면성을 도입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상징적 이미지

공적 권위성 대 개성적 탈권위성	→	에로틱 이미지
이성애 정체성 대 일탈적 성정체성	→	하이브리드 이미지
시공간적 일체성 대 혼성적 다양성	→	키치 이미지

은 제복이 가지는 규율, 권위, 질서라는 이미지가 위법적인 이해에 의해 전복되었을 때 가시적 충격과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적인 직무에 따른 권한의 부여로 권위성을 띠고 있던 유니폼은 차별화된 개성에 따른 탈권위성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띠게 되었고, 이성애와 대비되는 동성애, 페티시, 섹슈얼리티(sexuality), 포르노그래피 등 일탈적이고 반체제적인 새로운 이중적 의미를 담게 되었다. 또한 본래의 맥락과 시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스타일 연출로 혼성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니폼의 양면성은 공적 권위성 대 개성적 탈권위성, 이성애 정체성 대 일탈적 정체성, 시공간적 일체성 대 혼성적 다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유니폼의 양면성을 도입한 현대 패션의 상징적 이미지는 에로틱 이미지, 하이브리드 이미지, 그리고 키치 이미지로 나타났다.

첫째, 대중문화나 하위문화에서 유니폼은 성적인 모호함을 연출하거나 크로스 드레싱을 통해 일탈적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역할해 왔으며,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색시한 분위기의 밀리터리 룩 연출이나, 관음증적이고 페티시적인 간혹복과 메이드 스타일을 통해 에로틱하게 표현되었다.

둘째, 유니폼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한 현대 패션은 하나의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과의 혼재를 통해 지속적인 스타일 고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 스타일링은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스포츠 유니폼의 디테일과 장비들을 포멀 웨어나 캐주얼 룩과 혼합하고, 밀리터리 룩을 미래적이면서 캐주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유니폼의 기능성을 장식적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권위와 규범을 상징하는 군복의 계급장이나 종교복의 십자가 모티브, 교복 등 유니폼의 조형적 요소들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변형되고 재해석되면서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와 약호들이 해체되고 현실을 비평하고 풍자하는 키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유니폼의 양면성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다양한 스타일들과 혼재되고 변형되어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현대 패션의 캐주얼화 경향은 스포츠 웨어를 비롯한 유니폼에서 조형성 및 기능성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니폼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리라 전망한다.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은 패션에 다양한 장식적 디테일을 부여하며 원래의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 시각적 미를 위한 장식적 용도로 사용되고 이중적 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또한 밀리터리 룩은 현대인의 활동적 라이프스타일과 사회환경을 반영하는 대표적 트렌드의 하나로 인체공학을 고려하는 기능적인 디자인은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감각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유니폼의 조형적 요소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하고 혼재된 스타일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미적 가치와 형식을 탐구함으로써 유니폼의 일상복화라는 트렌드 측면에서 새로운 패션디자인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김상민, 김연희. (2001). 메사 유니폼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 127-145.
- 김홍탁. (2002, 5. 9). [광고속의 에로티시즘] 썬과 性的 위험한 만남 '베네통-시베어'.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9, 12. 12,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김홍탁. (2003). *광고 리비도를 만나다*. 서울: 동아출판사.
- 박세은. (2005, 10. 17). [패션] 밀리터리 룩.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10, 7. 8, 자료출처 <http://weekly.hankooki.com>
-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 임은안, 채금석. (2002). 현대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1308-1319.
- 한연희, 박명희. (2005).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9(5), 649-661.
- Boehn, M. (2000). *패션의 역사* (이재원 역). 서울: 한길아트. (원저 1913 출판)
- Craik, J. (2005). *Uniform Exposed: From conformity to Transgression*. Oxford New York: BERG.
- Hilfiger, T. & DeCurtis, A. (1999). *Rock Style*. NY: UNIVERSE.
- Hirschfeld, M. (1991). *Transvestites: The erotic drive to cross dress*. Buffalo: Prometheus Books.
- Joseph, N. (1986). *Uniforms and Nonuniforms. Communication Through Clothing*. New York: Greenwood.
- Langner, L. (1965). "Clothes and Government." In Mary Ellen Roach and Joanne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pp. 124-127). New York and London: John Wiley.
- Polhemus, T. (1996). *Style surfing*. London: Thames and Hudson.
- Steele, V. (1989) 'Dressing for work' in C. Kidwell and V. Steele (Eds.),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Washington* (pp. 64-91).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Stone, G. (1970). "Appearance and the self." In Gregory Stone and Harvey Farberman (Eds.), *Social Psychology Through Symbolic Interaction* (pp. 394-414). Waltham, MA and London: Ginn-Blaisdell.
- Wilson, E. (2008). Exhibition Review: Camouflage and Sailor Chic. *Fashion Theory*, 12(2), 277-284.

(2011년 7월 18일 접수 / 2011년 8월 23일 1차 수정 / 2011년 8월 23일 게재확정)